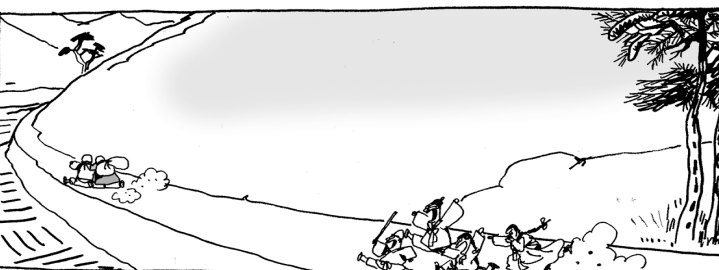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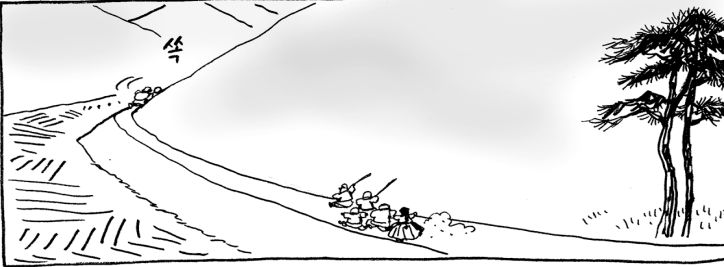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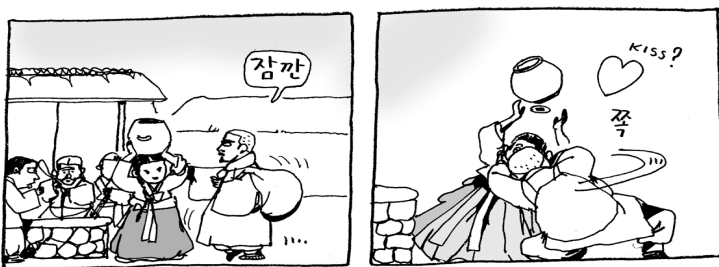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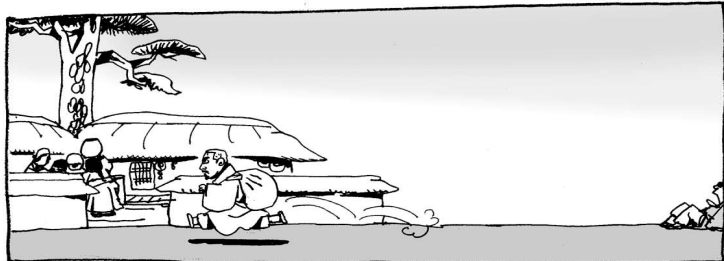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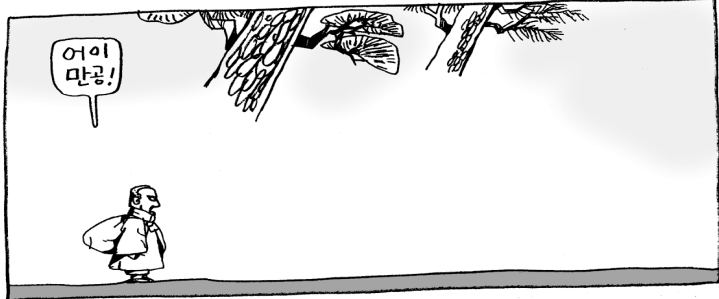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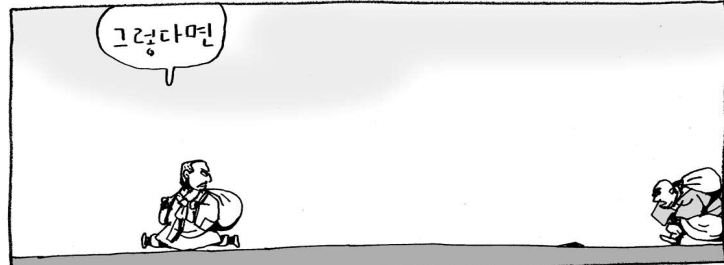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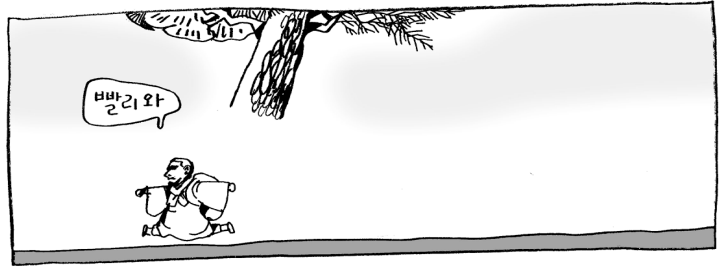


주장자 따라...

① 경허 스님의 축지법



조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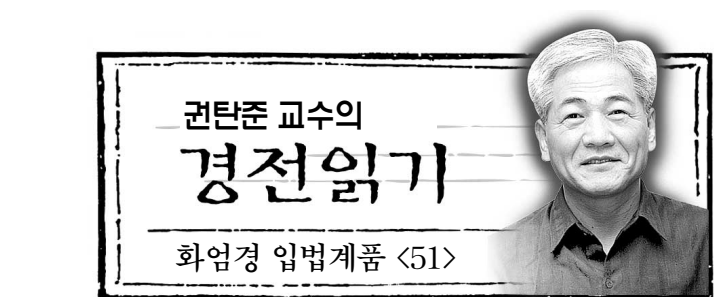
경허 선사는 근대한국불교선의 중흥조다. 1846년 출생. 9세때 청제사로 출가(스승 계허). 21세에 동학사 선원에서 오도. 59세에 갑사서 원적.

바산바연저 주야신은 엄부제 마가다 국의 보리도량에 있는 보덕정광(普德淨光)이라고 하는 주야신(主夜神)을 선제 동자에게 소개하면서 자기는 본래 그에게서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그가 항상 묘한 법으로 자기를 깨우쳐 주었다고 말하였다. 선제동자가 보덕정광 주야신을 찾아가서 보살의 경지를 출생하고 성취하는 법을 묻자, 주야신이 대답하였다.

“좋다. 좋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이제 또 보살의 지위를 수행하고 성취함을 묻는구나.

선남자여, 보살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능히 보살의 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보살행을 원만하게 하는 열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청정한 삼매를 얻어 모든 부처님을 항상 봄이요, 둘은 청정한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잠생기 모습으로 장엄함을 관찰함이고, 셋은 모든 여래의 한량없고 그치없는 공덕의 큰 바다를 알아, 넷은 법계와 평등한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의 광명바다를 알아, 다섯은 모든 여래의 법구명마다 중생의 수효와 같은 큰 광명바다를 놓아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케 함이다.

여섯은 모든 여래의 법구명마다 모든 보배빛 광명불꽃 내는 것을 봄이요, 일곱은 생각마다 모든 부처님의 변화하는 바를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하고 모든 부처의 경계에 끝까지 이르러 중생을 조복 시킵시오, 여덟은 부처님의 음성을 얻어 모든 중생의 말에 상응하는 세상 온갖 부처님의 법문을 굴림이요, 아홉은 모든 부처님의 그치없는 이름바다를 알아, 열은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조복시키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51>

보덕정광 주야신의 법문

열가지 법문 통해 중생 구원하고 수호 항상 고요하고 즐겁고 진실한 삶 설해

는 부사의하고 자재한 힘을 잃었다. 선남자여, 보살이 이 열 가지 법을 성취하면 보살의 모든 행을 원만케 할 수 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님(寂靜禪定樂普遊步)'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두루 보고 그 부처님들의 청정한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을 보며, 신통과 이름과 법을 말함과 수명과 말씀과 모습이 각각 같지 아니함을 모두 보면서도 집착함이 없다.

선남자여, 내가 이렇게 모든 여래를 아는 때에 보살의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니는 해탈문도 분명하게 알아 성취하고 자라게 하였다. 또한 생각하고 관찰하여 견고하게 장엄하며, 모든 허망한 생각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크게 가없이 여김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며, 한결 같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초선(初禪)

을 닦았다. 뜻으로 짓는 모든 업을 쉬고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며 지혜의 힘이 용맹하고 기쁜 마음이 매우 즐거워 제2선(第二禪)을 닦았다. 모든 중생의 성품을 생각하며 생사를 여의어 제3선(第三禪)을 닦았으며, 모든 중생의 온갖 고통과 번뇌를 모두 멸하여 제4선(第四禪)을 닦았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서원을 증장케 하고 원만케 하며, 모든 삼매바다를 내고, 보살들의 해탈바다의 문에 들어가며, 모든 신통에 유희하고 모든 변화를 성취하여 청정한 지혜로 법계에 두루 들어갈 수 있었다.”

먼저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경지를 출생하고 성취시키는 열 가지의 법을 보면, 주야신이 이 법문을 통해서 널리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그 국토와 도량의 온갖 회상을 보고 아울러 일체중생을 구원하고 수호함을 설한 것이다. 이것

은 바로 부처님의 덕(德)과 행(行) 등 부처님의 경계를 여러가지로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제동자가 보살의 경지를 출생하고 성취시키는 법을 물었는데, 대답으로서 부처님의 경계를 여러 가지로 설하고 있는 것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경계를 배우고 본받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문에서 “이 열가지 법을 성취하면 보살의 모든 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보덕정광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적멸하고 고요한 선정의 즐거움으로 널리 노닐면서 걷는 해탈문’의 법문은 이처럼 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를 보고 알게 됨으로써 어떠한 오염이나 동요됨도 없이 항상 고요한 즐거움 속에서 두루 널리 보살의 진실한 삶을 열어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덕정광 주야신은 항상 생사의 세속에 처하고 있으면서도 대자비를 행하여 법계에 두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해탈문의 경계 초선(初禪)에서부터 제4선(第四禪)에 이르기까지의 선정(禪定)의 경지로써 설하고 있다.

주야신의 이름이 보덕정광인 것은 지혜와 자비가 두루하면서 중생의 어두운 밤을 비추기 때문인데, 특히 보덕(普德)이라 하는 것은 그 자비가 세속을 두루 널리 양육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보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면서도 깨끗한 적정(寂靜)의 지혜에서 스스로 작용해 나오는 한없는 보살의 활동을 상징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인터뷰

‘주장자 따라’ 연재하는 조태호 화백

“깨달음의 주장자 실컷 맞아 봅시다”

“선지식들에게 있어 먹고 자는 일에서 손짓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은 깨달음을 향한 구도 과정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식들의 일상에서 채집된 많은 일화들도 그 높은 깨달음의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참나를 만화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부터 본지(本紙) 교리면(20면)에 ‘주장자 따라...’를 연재하는 조태호 화백. 그는 간단한 선과 간결한 언어로 선사들의 자유자재 했던 삶을 표현하는데 도전했다. “그 분들의 거침없는 삶에서 뽑아져 나오는 가르침들은 불교를 어렵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는 조 화백은 선지식들의 주장자가 오늘의 불자들에게 무서운 방향이 되길 희망한다. 선지식들의 주장자를 실컷 얻어맞자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 람들이 스스로의 주장자를 반듯하게 세우고 살아갈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약력〉 1986년 일간 스포츠 만화상 수상, 스포츠 만평 연재, 89년 중앙경제 ‘노고지리’ 연재, 94년 중앙일보 경제만평, 2000년 한국일보 조삿갓 연재.



임연태 기자

네터즌 교리문답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소서. 어떻게 머뭇없이 마음을 낼 수 있을지요. (붓다뉴스 D 역석)

답 1: 육조 혜능(慧能) 스님이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흥연히 깨달았다고 하는 이 글귀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해석됩니다. <금강경>의 핵심이 선종에서 중요시 하는 이 글귀는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취사 선택하지 않고 마음을 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D 김성우)

답 2: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조주 스님의 ‘머무는 바가 없는 근본에서 일체의 법을 세운다(從無住本立一切法)’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의 차별없는 실체를 깨달아 사물의 모습에 집착하려고 해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통달한 경지입니다. (D 푸른바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애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선의 세계 25

견성성불(見性成佛)-12

지난 회 글 끝 부분에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진일보(進一步)라하는 말에 대해 언급하였다. 선사들이 그 말을 할 때에는 모든 분별을 남김없이 떨쳐버리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처와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떨쳐버려야 할 분별이라고 하였다.

까마득히 높은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으라고 함은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인데, 분별을 남김없이 떨쳐버리는 것을 두고 어찌하여 죽는 일에 비유하는가? 지난 회 글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분별을 삶의 기본적인 기능이며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무기로 여긴다. 하기는 잔 것 과 뜨거운 것, 네모와 세모 등 사물에 대한 단순한 분별은 물론이고, 먹어도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좋은 것과 싫은 것 등등 온갖 분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 그런데도 분별을 남김없이 떨쳐버리라는 것이니 가히 죽음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모든 분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분별은 나 자신과 바깥세상 사이의 분별이다. 달리 말하자면 주객(主客)의 구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동하는 모든 분별은 그 가장 근본적인 분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기를 위주로, 즉 나 자신을 주(主)로 삼고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을 객(客)으로 삼아 온갖 분별을 일으킨다.

그런 분별 자체는 이상하다 할 것도 잘 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우리는 워낙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 즉 개별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교리에서는 그런 불 가피한 분별조차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듯한 대목이 있다. 윤회의 사슬에 매어 한 개별자로 태어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불도(佛道)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이란 곧 윤회로부터의 해방이다. 윤회로부터 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의 양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거나 상상할 수 있는 존재 양상은 언제나 개별자로서의 존재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 양상, 즉 개별자로서 살아가는

‘성불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려 놓아라

양상의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해보자. 문제는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해서 모든 개체를 분별할 줄만 알았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삼라만상이 모두 연기적(緣起的)인 존재라는 점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자신을 연기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은 곧 기왕의 자아관념을 철저히 버림을 뜻한다. 달리 말하자면 주(主)로서의 ‘나’가 죽어야 연기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버림 끝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다. 성불하겠다고 불도를 닦는 이로서는 부처가 아닌 나, 부처와 구별되는 나를 죽이는 것이니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 성불하겠다는 삶의 마지막 의미까지 내려놓아야 하며, 바로 그때에 이미 부처인 나의 정체가 비로소 살아난다는 얘기이다.

■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